

## 신사 참배와 우리의 예배

2024년 2월 22일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홍승민 (독립개신교회 서울 성약교회)

한국 기독교는 신사 참배를 가결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sup>1)</sup> 안식교가 1935년 12월에 처음으로 신사 참배를 가결한 이래로, 이듬해 4월에는 감리교에서 신사 참배가 국가의례라는 일제 당국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기로 결정하였고,<sup>2)</sup> 같은 해 5월에는 로마 교황 비오 12세가 “신사 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이를 용허한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sup>3)</sup> 성공회도 같은 해에 신사 참배를 가결하였으며, 2년 후에 구세군과 성결교 모두 신사 참배의 강요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주요 교단 가운데 마지막까지 항거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마저 일제의 국가신도(國家神道)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 1938년 9월의 일이다.<sup>4)</sup>

신사 참배를 수용했다고 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1945년 8월 1일에는 조선의 모든 교파들이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통합되어 일본기독교단에 완전히 예속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에큐메니컬 현상은 두 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8월 15일에 일제가 연합국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함에 따라 자연히 해체되었다.<sup>5)</sup> 기록에 따르면, 해방이 된 날로부터 8일 동안 전국적으로 신사(神社, 진자)와 신사(神祠, 신시) 136처가 불에 탔다고 하는데,<sup>6)</sup>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한국민들이 얼마나 신사에 대한 원한이 컸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sup>7)</sup>

---

1) 개인적인 차원이나 소규모로 신사 참배에 끝까지 항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2)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문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p. 58.

3) 김인수, 『일제의 한국 교회 박해사』 (초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p. 99.

4) 장로교 총회가 신사 참배를 결정한 후 그해 12월 12일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주요 지도자들이 함께 일본에 있는 이세신궁과 가시하라신궁에 참배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다고 한다.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8), p. 260.

5) 허순길, p. 277.

6) 조선총독부령 제21호 「신사(神祠)에 관한 건(件)」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사(神祠)라고 칭함은 신사(神社)가 아니면서 공중(公衆)에 참배를 시키기 위해 신기(神祇)를 봉사(奉祀)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https://www.minjok.or.kr/archives/122631>. 웹사이트 참조.

해방 후에도 배교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했다. 특히 신사 참배 거부로 투옥되었던 성도들이 출옥하면서 신사 참배를 받아들였던 성도들과의 갈등이 유발되었고, 또 고초를 겪었던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앙사상이나 교회 재건 운동의 기본 방침 등에서 엄청난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분열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다.<sup>8)</sup>

오늘날에도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사 참배 문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크나큰 죄악으로 남아 있다는 것과 그것이 교회 역사 안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분열의 상처를 안겨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단들이 신사 참배를 가결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여기서 그것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먼저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것을 일본 역사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일제가 교회에 신사 참배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만의 요소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

## 1. 일본 신도와 신사 참배

### 1) 신도(神道)에 관하여

우리가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가 지닌 성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신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신도(神道)라는 명칭 자체는 일반적으로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일본에 들어온 불교, 유교 등 여러 외래 종교와 구별되는 일본 고유의 종교를 총괄하여 ‘신도’라고 부르는 것이다.<sup>9)</sup>

신도는 일종의 정령 숭배 종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도에서 섬기는 신은 유일신이 아닌 각 가정이나 그 지방의 수호신이다. 그러던 것이 그 지역의 영웅이나 지도자를 숭배하고 조상의 영혼을 섬기게 되면서 일본의 정신적 종교로 화하게 되었다.<sup>10)</sup>

신도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는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sup>11)</sup> ① 신사신도(종교시

7) 김인수, p. 108.

8) 김승태 編, 『한국기독교와 신사 참배문제』(재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2), p. 143. 또한 재건교회 운동이 일어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가 1952년 10월에 총노회를 새로 결성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허순길, p. 414 참조.

9) 김은수, 『한국장로교회사』(개정증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p. 191.

10) 김은수, p. 192. 물론 이것은 국가신도가 성립되기 이전까지의 신도를 말한다.

11) 김은수는 6가지로 이야기했지만, 국가신도는 후대에 발생한 현상이므로 예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김은수, p. 191 참조.

설로서의 신사를 중심으로 한 신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② 황실신도(일왕가의 궁중제사를 중심으로 한 신도), ③ 이론신도(학파로서의 신도사상), ④ 교파신도(국가신도 체제에 편입되었던 신도적 배경을 기반으로 성립한 일련의 종교들), ⑤ 민간신도(민간신앙적인 신도 습속)가 전통적인 분류에 속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신도(천황제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던 국교로서의 신도)가 있다.<sup>12)</sup>

역사적으로 볼 때, 신사신도의 경우에는 1945년까지 문부성 종교국이 아닌 내무성 신사국에 속하여 국가의 보장과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가신도와의 구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sup>13)</sup> 그러나 1945년 12월에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표한 ‘신도지령’에 따르면 신사신도는 민간적·개인적·일반 종교적인 것을 가리키는 데 비해, 국가신도는 정부에서 보장·지원·보존·감독한 국교적인 것,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교학이라고도 할 만한 것으로, 국민에게 강요한 것을 가리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sup>14)</sup>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제가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조선에 신사 참배를 강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도 국가신도로 향하게 될 것이다.

## 2) 국가신도(國家神道)에 대하여

국가신도는 메이지 왕정 때 만들어진, 천황을 교주로 하는 신흥 종교라 볼 수 있다.<sup>15)</sup> 하지만 이 또한 신도의 이름을 가진 이상에는 신도라는 일본의 종교 지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16)</sup>

과거 일본은 막부 체제, 일종의 지방 봉건 제도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1868년에 메이지

12) 국가신도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라카미 시게요기라는 일본 종교학자에 게서 기인하는데, 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신도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①부터 ⑤까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이소마에 준이치, 『근대 일본의 종교 담론과 계보』제점속 옮김 (서울: 논형, 2016), p. 363와 김정기, 『일본 천황 그는 누구인가 : 그 우상의 신화』(파주: 푸른사상사, 2018), p. 246 참조.

13) 김은수, p. 204.

14) 김은수, p. 204. 참고로 신도지령 자체가 신사신도에서 국가신도를 분리해 낸 후에 이 국가신도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포된 명령이다. 과연 신도지령이 의도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 명령이 내려진 목적이 그렇다는 뜻이다. 김정기, pp. 261-5 참조. 또한 이 신도지령의 원문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라. <https://jahis.law.nagoya-u.ac.jp/scapindb/docs/scapin-448>

15) 김정기, p. 247.

16)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국가와 강력한 결부를 맺고 발전한 신도의 한 형태로서 황실제나 천황 숭경 시스템과 신사신도가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대답이 될 것이다. 김정기, p. 248 참조.

유신을 시작하면서 왕정복고와 제정일치를 정치적 이상으로 내세워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sup>17)</sup>

그런데 메이지 유신의 책사들이 이미 신사신도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국가신도를 성립시켜야 할 무슨 당위가 있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신도는 일본사회가 서양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일본 토착신앙과 전통 궁중제사를 결합하여 **기독교에 저항하려는** 하나의 몸짓임과 동시에, 같은 시기 국가신도를 서양의 신앙의 자유 및 국민국가 이념과의 정합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신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역이용한 신사비종교론(神社非宗教論)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사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공공도덕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독교나 불교 등 개인의 종교 신조와 무관하게 신사숭경을 국민에게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했다.<sup>18)</sup>

국가신도의 변천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 제1단계는 이른 바 신도를 국교로 하여 천황제 내셔널리즘의 골격을 구축하던 시기를 말한다(1868년부터 1882년).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서양에서 유입된 신앙의 자유 및 종교라는 개념이 사회에 정착하기 이전의 상황이다. 즉, 서방 세력에 의해 침투해 온 기독교에 대항하면서 일률적으로 국민 교화를 지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제2단계는 1884년 교도직폐지와 1889년의 대일본제국헌법, 소위 메이지헌법이 공포되면서(1889년), 신앙의 자유가 일본 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도덕과 종교가 분리된 시기이다. 즉 공적 영역으로서의 국민의 의무인 도덕과 사적 영역으로서의 개인의 역량에 일임된 종교로 구분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일본제국헌법으로 보장된 신앙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신민(臣民)의 의무인 국민 도덕이 개인적 관심사인 종교 문제에 우선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었다.<sup>20)</sup>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민 교화 정책,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신도 체제를 선포한 시기를 가리킨다(1906년부터 1945년까지). 이 시기에 일본 정부는 신사가 종교가 아니라는 신사비종교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신사숭경은 종교가 아닌 국민 도덕의 범주에 속한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신사가 국민 교화의 지역 거점의 역할을 수

17) 김남식, 『신사 참배와 한국교회』(서울: 새순출판사, 1990), p. 100.

18) 이소마에 준이치, pp. 368-9.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 위의 종교, 종교를 초월한 종교라고 보아야 한다.

19) 이소나메 준이치, p. 369.

20) 이소나메 준이치, pp. 370-72.

행하게 만들었다.<sup>21)</sup> 그리하여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하는 소위 국가신도가 확립된 것이다.<sup>22)</sup>

### 3) 천황 현인신론(現人神論)에 대하여

한편 근대 천황제 연구에 천착한 야스마루 요시오 교수에 따르면, 천황제를 구성하는 기본 관념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다. ① 만세일계의 황통으로 이어지는 ‘현인신’(現人神) 천황관, ② 제정일치라는 신정적 이념, ③ 천황과 일본국에 의한 세계 지배의 사명, ④ 문명 개화를 선두에 서서 추진하는 카리스마적 정치 지도자로서의 천황이 그것이다. 이들 천황관은 일본의 신화에서 유래한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19세기 말 에도 일본이 처한 위기, 특히 대외적 위기를 대처하려는 의식에서 생겨난 천황관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sup>23)</sup>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핵심인 현인신 천황관은 어디에 연원하고 있는가 할 때, 김정기는 에도 중기의 국학자(國學者) 모토오리 노리나가(1732-1802)와 그의 문인 히라타 아쓰타네, 이 두 국학자가 완성한 천황교의 ‘현인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현인신 천황관은 그때까지 ‘천황’과는 전혀 다른 절대신적인 천황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sup>24)</sup>

여기서 국학(國學)이란 일본의 독자적 사상이나 정신세계를 일본 고전에서 찾자는 ‘학문’을 말하는 것으로서 에도 중기에 완성되었다고 한다.<sup>25)</sup> 에도 막부 정권이 중국의 유교를 국체의 기본 사상으로 장려하였지만, 에도 중기가 되자 중화사상을 모두 없애고 순수한 일본 고전에서 일본 정신을 찾아 고취시키자는 기운이 일어난 것이다.<sup>26)</sup>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노리나가이며, 이렇게 시작된 국학이 국수주의적인 사상과 맞물려 완성된 것은 한 세기 이상이 지난 19세기 중반의 일이다. 다시 말해 조선의 지배계층이 주 자학에 함몰되어 있는 동안 일본은 중화사상과 결별하고 국학운동을 펼쳤고, 메이지 유신의 성립에도 기여한 것이다.<sup>27)</sup>

---

21) 이소마에 준이치, pp. 373-4.

22)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김승태 옮김 (서울: 기독교문사, 1990), p. 157.

23) 김정기, p. 129.

24) 김정기, p. 130.

25) 김정기, p. 130.

26) 김정기, p. 132.

27) 김정기, p. 132-4.

노리나가의 국학운동이 가진 문제는 이것이 단지 문예적인 일본 정식을 넘어 정치적인 일본 정신을 찾는 데로 나아간 데에 있다. 그가 35년에 걸쳐 『고사기』 전반에 대한 주석서를 완성한 것이 『고사기전』인데, 실로 이것은 ‘천황교 교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 천황교의 교전에 우리는 신에 얽매인 종속적인 인간관, 인간을 초월한 절대적 신관을 발견하게 된다.<sup>28)</sup>

노리나가가 천황교의 교의를 구상한 사람이라면, 그의 사후 문인으로 합류한 아쓰타네는 그의 교의를 종교 이론적으로 완성한 인물이다. 이 두 국학자가 창조한 ‘천황교’의 교이는 메이지 유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군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에 좋은 빌미를 제공해 준 셈이다.<sup>29)</sup>

노리나가의 국학 사상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① 이 세상 전체를 인지(人知)나 인위(人爲)를 넘어 근본적으로 신의 기획으로서 종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 ② 그 때문에 인간들은 신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한다는 것, ③ 인간의 불행, 불운, 부도덕 따위 등이 다 인위가 마치기 어려운 신들이 가진 존비선악(尊卑善惡)의 사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sup>30)</sup>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리나가의 이러한 신 관념은 ‘현인신’ 천황관에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천황을 살아있는 절대적 신으로 본다**는 말이다. 이러한 절대적 신개념은 본래 일본의 전통적인 신관에는 없던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절대적 신관은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관을 인간중심적인 신관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배척한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신에 지성을 다 하면 받아들이는 따위의 생각은 곧 중국 사상이며 큰 잘못이다. 이 세계에 일어나는 것은 범인의 얇은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sup>31)</sup>

문제는 그가 이러한 그의 절대적 신관을 천황과 연결시켜서 천황이 만민의 삶에 직접 참여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같은 인간신이자 절대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은 천황의 칙령을 황송하게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2)</sup> 그러면 절대신은 왜 인간에게 재앙과 어려움을 허락하는가? 노리나가는 이것을 이원론적 신관으로 설명한다. 노리나가는 『고사기전』에

28) 김정기, p. 135.

29) 김정기, p. 136.

30) 김정기, p. 138.

31) 김정기, pp. 138-9.

32) 김정기, p. 141.

서 재앙신의 별명을 세오리쓰히메(京つ媛)라 한다. 노리나가의 생각에 의하면 이 세오리쓰히메는 천조대신의 ‘아리마타마’(荒魂, 분신)이기도 하다.<sup>33)</sup>

노리나가에 의하면 인간의 길흉화복은 인간 마음의 존재 양식이나 행위의 선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후에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도 그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길흉화복은 어디까지나 신의 기획인 것이고 인간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구원이란, 이 어쩔 수 없는 가장 슬픈 죄업으로 짙 차 있는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현인신 천황의 존재와 그를 정점으로 해서 상하 빈틈없이 정해져 있는 계층질서만이 희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황국 일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sup>34)</sup>

후에 메이지 왕정의 책사들은 노리나가를 필두로 한 일본 국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현인신 천황관을 천황(日王)을 축으로 통일 중앙 왕정을 수립하기 위해 천황의 권위를 한껏 키우는 책략에 이용하였다. 이제 메이지 왕정의 성립으로 들어선 천황은 ‘현인신’의 얼굴을 그 특성으로 하게 되었다. 즉, 천황은 사람이자 신, 또는 신으로 나타난 사람이 된 것이다.<sup>35)</sup>

#### 4) 신사비종교론(神社非宗教論)의 대두

일본에서의 종교개념의 확립은 막부 말 개국을 시작으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서양 세계 속에 일본이 편입되어 가는 과정 중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한다.<sup>36)</sup> 당시 서양제국주의에서 통용되던 만국공법이라는 국제법에 의한다면, 일본은 중국이나 터키와 함께 제한된 형태에서만 주권이 인정되는 야만국으로 분류되었고, 결과적으로 당시에 구미제국과 맺은 일련의 통상조약은 모두 불평등 조약이었다고 한다.<sup>37)</sup>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 일본은 신속히 야만국 범주에서 탈피하여 서양 여러 나라와 대등한 문명국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게 되었다.

한편, 문명국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을 비롯한 서양과 같은 사법제도의 정비-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서양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요구되는 것은 서양적 문화양식과

33) 김정기, pp. 141-2.

34) 김정기, pp. 142-3.

35) 김정기, p. 126.

36) 이소마에 준이치, p. 82.

37) 이소마에 준이치, pp. 82-3.

가치체계의 광범위한 수용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의 대표적인 수용이 바로 기독교이다. 예를 들어 비서양 지역의 만국공법의 적용을 논한 만국국제법학회에서 ‘문명’국과 ‘비문명’국이라는 말이 ‘기독교의’와 ‘비기독교의’로 대치된 것은, 문명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sup>38)</sup>

원래 ‘종교’라는 말 자체는 한역불전(漢譯佛典)의 조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구미(歐美) ‘릴리전(Religion)’이라는 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종교’라는 말은 막부 말(末) 개국의 시작과 함께 일본이 서양의 문명세계 속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일본 사회 속으로 정착하게 된 실로 근대적인 인식양식의 소산인 셈이다.<sup>39)</sup>

이 릴리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1857년의 미일수호통상조약 때부터라 한다.<sup>40)</sup> 그러다가 이 말이 ‘종교’라는 번역어로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는 메이지 1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로 추정된다.<sup>41)</sup> 근세에 있어서 종교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불교 내의 ‘종파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릴리전의 번역화를 계기로 각 종교를 포괄하는 확대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sup>42)</sup> 이것은 에도 막부 시대에 불교가 종교를 제도적으로 독점하고 있던 상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3)</sup>

이처럼 기독교가 서양문명의 출현으로 일본 사회에 등장하게 되자, 다른 여러 종교도 기독교에 못지않게 자신의 종교가 얼마나 명확한 교의체계를 가지고 문명화에 도움이 되는가를 앞 다투어 주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종교가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교의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던 것은 바로 기독교였다.<sup>44)</sup> 기독교가 우위를 점하게 된 배경에는 구미 여러 나라의 압력이라는 대외적 계기도 컸지만 동시에 당시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프로테스탄트적인 윤리적 종교와 상통하는 유교적 소양이 존재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시 일본에서는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어휘적으로 그다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45)</sup>

---

38) 이소마에 준이치, p. 83.

39) 이소마에 준이치, p. 79.

40) 이소마에 준이치, p. 84.

41) 이소마에 준이치, p. 89.

42) 이소마에 준이치, p. 92.

43) 이소마에 준이치, p. 92.

44) 이소마에 준이치, pp. 92-3.

45) 이소마에 준이치, p. 96.

종교가 윤리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메이지 10년대 후반부터 20년에 걸쳐, 즉 1877년부터 1884년까지 교부성 정책이 붕괴되고 성속의 분리가 일본 나름대로 확립된 이후의 일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했던 것은 정부와 계몽사상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들에 있어 공통적 요소는 ‘어떤 종교가 일본 국민통합에 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sup>46)</sup>

하지만 메이지 10년대 후반에 발생한 과학과 종교의 대립(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과 20년대 초반의 국가와 종교의 대립은 일본이 그동안 서양문명과의 일체화를 이룬 종교 관념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sup>47)</sup> 여기서 메이지 20년대 초반에 발생한 국가와 종교 간의 충돌이란 종교의 현세비판적 측면이 소위 우치무라 간조의 불경사건으로 인해 표면화된 것을 말한다.<sup>48)</sup> 이 사건을 소개한 글을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1891년 도쿄 제1중학교 촉탁교사였던 우치무라 간조가 교육 칙어(敕語)의 봉대(奉戴)·봉독식(奉讀式)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칙어에 대한 경건한 경례를 거부한 것에서 발단되었다. 이때 우치무라는 기독교는 천황제와 어울리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했고, 그 결과 자리에 물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국가가 최우선임을 칙어체제를 통해 알린 것으로,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8조문도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한’이라 한정하여 전반 부분에 강조를 둔 ‘종교적 관용’에 지나지 않았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종교적 관용이라 함은 가톨릭교국과 같이 국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여기서는 타종교를 신봉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천부인권설에 근거한 신교(信敎)의 자유(종교의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sup>49)</sup>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사회 안에서 종교는 국가권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1884년(메이지17)에는 교도직 대신에 관장제가 시행되어 내무성 허가 없는 종교단체의 공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각 종교들은 국가이데올로기로의 합의점을 스스로 강구해야만 했었는데,<sup>50)</sup> 결과적으로 당시에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대상화하려는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가를 구현하는 천황제의 근거를 현인신이라는 종교적인 것에서 추구하는 이상, 국가 존립기반 자체가 신교(信敎)의 자유이념에 저

46) 이소마에 준이치, p. 100.

47) 이소마에 준이치, p. 102.

48) 이소마에 준이치, p. 107.

49) 이소마에 준이치, pp. 110-111.

50) 이소마에 준이치, p. 111.

촉을 받을지라도, 각 종교들은 신교의 자유만을 주장할 뿐 천황제 자체가 가진 근본적 모순을 비판하는 것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sup>51)</sup> 이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당시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인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이 메이지 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에 걸쳐 종교는 한 쪽에서는 과학과, 다른 한 쪽에서는 국가와의 대립선상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국가와 과학이 결부된 공적인 영역이 합리적인 것으로 형성되고, 이를 구현하는 도덕은 도쿄제국대학 등에서 윤리학이나 국문학과 같은 근대 서양의 학문인 ‘국민성’이라는 형태로 확고히 자리잡아 갔다. 종교는 이 시점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면서 사적 영역에서 비과학적인 영역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과거 ‘교’ 안에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공존하였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양자는 확실히 구분되어 종교는 도덕의 하위에 위치하게 되었다.<sup>52)</sup>

결과적으로 이 분할선을 전제로 하여 천황제와 관련성이 있는 이데올로기는 도덕 영역에 속하게 되고, 천황가 조상을 모시는 신사신도도 도덕으로 비종교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 5)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제하게 된 배경

일제는 1925년 제국회의에서 보통선거법과 함께 치안유지법을 가결하여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였다가, 1928년에는 “국체 변혁”의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sup>53)</sup>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국체란 무엇인가? 1937년 일본 문부성이 낸 “국체의 본의”에 따르면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황조의 신칙을 받들어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 만고불역의 국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54)</sup> 계속해서 1944년에 신기원(神祇院)이<sup>55)</sup> 퍼낸 ‘신사본의’에 따르면 “대일본제국은 두렵게도 황조 천조대신이 창시하신 나라로서 그

---

51) 이소마에 준이치, p. 112-3.

52) 이소마에 준이치, pp. 110-111.

53) 한석희, p. 152.

54) 한석희, p. 154.

55) 본래 내무성에 설치된 신사국이 1940년부터 46년 사이에는 신기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신성한 후예로 나타나신 만세일계의 천황이 황조의 신칙대로 아주 먼 옛날부터 끝없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만방에 비할 바 없는 우리 국체이다”라고 하였고, “이 존엄하기 비할 데 없는 국체에 기초하여 (중략) 안팎에 퍼서 어그러짐이 없는 도아말로 유신(惟神)의 대도(大道)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천황의 역할에 대해 말하기를 “황조 황종의 신위를 받들어 황군을 통솔하고, 천업을 널리 펴 (중략) 종말은 없고 적들은 쳐서 (중략) 만방으로 하여금 각각 그 적당한 곳을 얻게 하여, 널리 신위를 미치게 함으로써 황국의 세계적 사명은 달성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56)</sup>

그러므로 일제의 국체의 교의는 바로 침략의 교의였던 것이다. 일제가 이러한 침략의 교의를 바탕으로 외지를 영토화한 곳이나 세력이 미치는 곳에 대해서도 자국에서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하는 신사제도를 확립하였던 것처럼 같은 양식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국내 신사제도의 연장으로 일제는 예외없이 해외 침략지역에다가는 이세신궁에 봉사하는 “정부 설치 신사”라 부를 관폐대사를 설치하였고, 그 아래는 민간 설치의 신사를 두어 제종교를 통제하는 종교지배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sup>57)</sup> 이처럼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구조의 신사제도가 조선 땅 전역에 배치를 마치게 되고, 국체명징의<sup>58)</sup> 시류까지 편승하게 되자 자연히 신사 참배는 급속하게 그 강요도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sup>59)</sup>

## 2. 신사 참배 강제 과정에 나타난 기만의 요소란 무엇인가?

### 1)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초기 대응

신사 참배의 강요는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32년 9월 추계 황령제 날에 평양 서기산에서 ‘만주사변’ 전몰장병 위령제가 거행되고 각 학교 생도는 참배를 요구받았는데, 기독교계 학교가 참가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당국은 전국 학교에 국민이례로 신사 참배를 엄수하도록 통고하였다. 그러나 점차 신사 참배에 대한 거부를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폐교를 하기 시작했다.<sup>60)</sup> 그리하여 1938년 2월까지 사이에 복창로

56) 한석희, p. 154.

57) 한석희, p. 157.

58) 국체명징이라는 제7대 총독 미나미지리가 부임한 후 발표한 조선통치의 5대 지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사참배, 궁성요배, 국기와 국가의 존중 등 실천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9) 한석희, p. 159.

60) 한석희, p. 162-3.

교회가 경영하는 8개의 중등학교, 그리고 남장로교회가 경영하는 10개교를 각각 폐교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해에 송실전문학교도 폐교하게 된다.<sup>61)</sup>

(교회에 대해서도 이미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가 있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 2) 신사 참배 합리화 [회유책]

1935년부터 1938년 동안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들이 신사 참배를 가결하였다고 해도 저항운동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일제는 나름대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면서도 또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회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마침 일제가 신사 참배를 회유한 활동이 허암 김홍전 목사의 강설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 터라 대표적인 부분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신사 참배(神社參拜)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사 참배에 대해 한쪽에서는 ‘그것은 우상 숭배다. 어떻게 마귀에게 절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만 해야 할 경배를 우상에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신사 참배를 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평양에 있는 주기철(朱基徹, 1897-1944) 목사를 위시한 세 목사가 처음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모 목사였는데 저와 아주 친하던 친구였고, 또 송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목사 하나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맹렬하게 반대하다가 몽둥이로 굉장히 두들겨 맞아서 사지를 놀릴 수 없는 상태로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그릴 때 일본에서 학자들이 오고 일본 기독교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도미다 미쓰루(富田滿, 1883-1961)라는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이가 그 교단의 머리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단의 머리를 통리(統理)라고 해서 ‘대한 기독교 교단 통리’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통리라고 했는지 총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그 사람이 다른 이들과 같이 와서 설득을 했습니다. ‘신사 참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된 사람이 국가에 당연히 바쳐야 할 경의이다. 경의를 표시하는 형식으로서 가서 절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절을 한다. 경의를 표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지 않은가?’ 하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중략)...

그러니까 ‘그런 인사의 방법이 다 마찬가지로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다 경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절을 하든 형식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내용이 문제일 텐데, 신사 참배가 무엇을 숭배하고 경배

---

61) 한석희, p. 164.

하는 내용이나 하면 그것은 아니다. 국가에 대해서나 국가의 조종(祖宗)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경의를 표하는 것은 국민 된 자나 신민(臣民) 된 자로서 마땅한 것 아니냐. 국가의 시조에 대해서 이만큼 공경을 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무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한다고 해서 거기에 꼭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혼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신의 선조가 묻힌 무덤이니까 선조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는 형식으로서 가서 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이라는 것은 형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취하고 어떤 형태나 어떤 꼴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또 시아네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인 종교학자가 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신사 문제를 논한 것을 다 읽어 보고는 거기에 있는 어떤 목사 하나가 '아, 내가 공연히 싸움을 했구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절대로 다른 것에는 드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싸움을 한 것이지, 사람을 만나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나 국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싸움을 하고 죽어도 안 내놓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줄 것을 사람에게 주고 가이사에게 줄 것을 가이사에게 돌렸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가지고 야단 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돌릴 것에 대해서까지도 '아,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너에게는 절대로 못 주는 것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 한다면 '너 미쳤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다가 '그렇다면 괜찮은 것 아니냐'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공연히 싸움을 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고 총을 겨누고 대전(對戰)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푸라기로 만든 것이더라. 무엇 때문에 지푸라기로 만든 것을 보고 밤낮 긴장해서 내가 총을 겨누고 있어야 한단 말이나? 소용없는 일이다. 나는 사람에게도 고개 숙여 절하니까 국가에 대한 경의를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면 나도 신사에 가서 천조 대신(天照大神)에게 한번 고개 숙여 절하고 오겠다. 그것은 국가의 심벌(symbol)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서 절을 한번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론이 그랬습니다.<sup>62)</sup>

62) 김홍전,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II』(서울: 성약출판사, 2012), pp. 62-65.

### 3) 신사 참배 합리와 논변에 숨겨진 기만의 요소

현재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저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갈 수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생사의 문제를 앞에 놓고 투쟁하던 사람들에게 제시된 회유책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사 참배를 정당화 하는 논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너무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적어도 그 논변이 호소력을 가지고 투사와 같이 저항하던 그들의 마음 속에 침투해 올 수 있었던 기만의 요소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 계속해서 허암의 길을 인용해 보려고 한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에 기만이 있구나. 이런 것이 기만성이라는 것이다. 속이는 행위인 것이다. 셋째 시험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셋째 시험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야 한다. 셋째 시험은 마귀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귀는 자기를 자기만큼 인정해 달라고 한 것이다. 마귀가 자기를 자기만큼 인정해 주고 자기 가치만큼 인정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거라 하셨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즉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둘째는 홀로 그만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일인가를 따져야 한다. 주께 드릴 경배는 아주 절대적이고 독특한 것이니까 주께 드리는 경배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신사에 가서 절할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굴복이라는 의미에서 경배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는 말과 홀로 그만 섬기라 하는 말은 붙어 다니는 말이다. 그래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것이 그를 섬기는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사에 대한 책을 여러 군데에서 얻어 읽고 신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사 참배를 국가에 대한 의식(儀式)이라고 하지만 하필 월(何必曰) 강렬한 종교적 의미와 질료(質料)를 가진 것을 가지고 의식을 삼았습니다. 또 국기 게양이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느냐 할 때, 전국적으로 모두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해석하고 그것이 곧 신사에 절하는 한 양식(樣式)이라고 했다면 그때는 국기 게양도 반대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국가적인 해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를 게양한 후에도 또 신사에 가서 절을 하라고 끌고 다녔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면 기어이 또 신사로 끌고

가서 절을 하라고 하고, 절을 하지 않는다고 두들길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 기를 게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두들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벌써 저희 나라 국기를 게양한 것을 신사 참배로 간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국기 게양 자체는 신사 참배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슬쩍 그런 식의 이론을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만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의 문제는 마귀는 마귀만큼 자기에게 해당하는 가치를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종교적인 숭앙으로서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 그러냐’ 하고 말 한마디로 그렇다고 인정하라는 것도 도전이지만, 신(神)인 마귀의 존재를 생각할 때 그런 인정이라는 것은 결국 종교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명의 관계가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마귀와 상대할 때는 신명의 관계지 육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사의 문제도 한마디로 하면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사는 저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정한 것이고 국가의 수호신으로 인정하고 제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래서 신관(神官)도 세워 놓고서는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다 가르쳐 놓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몇 사람이 반대하니까 저희 나라 기독교인을 시켜서 그런 의미가 없다고 속여서 끌고 들어가 절하게 한 것인데, 그런 속임수는 안 되는 것입니다.<sup>63)</sup>

#### 4) 신사 참배의 종교성

앞서 인용한 허암의 글에 따르면, 신사 참배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일제가 어떻게 국가신도를 절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비종교화시켰는지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를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허암이 여기서 일제가 아무리 신사비종교론을 천명하였을지라도 국가신도가 분명히 종교적인 의미를 내함하고 있다는 결론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우리는 앞에서 ‘종교’라는 말이 어떻게 일본 사회 안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다. 우리는 거기서 ‘종교’라는 용어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종교’라는 개념을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일제가 규정한 종교

63) 김홍전,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II』(서울: 성약출판사, 2012), pp. 66-68.

의 개념을 가지고 신도의 종교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종교가 가진 개념의 보편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본래 ‘종교’라는 용어의 뿌리가 되는 ‘릴리전’이 서양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이 성경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이를 토대로 국가신도의 종교성 내함 여부도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개념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교의 개념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서양 사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종교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모리스 자스트로(Morris Jastrow Jr.)는 그의 저서 『종교학』에서 서양 사회 안에서 종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고 이해되었는지를 놓고 역사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소위 종교의 요소는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① 어떤 힘[세력] 내지는 우리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세력들]에 대한 자연적인 인식; ② 이러한 힘 내지 세력들에 대해 의지하려는 감정; ③ 이러한 힘 내지 세력들과의 관계 맺음이 바로 그것이다.<sup>64)</sup> 이러한 구분법은 비교종교학 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은수에 따르면, 종교의 구성 요소는 주체와 객체, 그리고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로 규정된다.<sup>65)</sup> 다만, 여기에 종교가 가진 집단성을 염두에 두고 종교의 종단과 교단을 종교의 요소에 추가할 수는 있다.

종교 현상 내지 종교 생활의 핵심 요소에 대해 허암의 이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강설 가운데 사울이 엔돌의 접신녀를 찾아간 죄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저세상과 어떤 교통을 가지고 싶든지 저세상에 있는 힘을 빌어서 자기의 복리를 증가하겠든지 자기의 액을 면하겠든지 저세상의 힘을 빌어서 교통을 하고 싶든지 하는 것은 중요한 종교 현상입니다. 종교 현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부를 이루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초연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통치를 받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배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당이든지 신접한 자든지 박수는 일종의 종교적 계시의 형식, 즉 저세상과의 교통의 형식인 것입니다.

64) Morris Jastrow, The Study of Religion. (Michigan, Edwards Brothers, Inc., 1901), p. 171.

65) 김은수, pp. 32-35.

신접한 자는 강신술을 통해서 저세상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과 교통해서 초혼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내어 달라고 해서, 사무엘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통만 할 뿐 아니라 박수와 같이 저세상의 신의 어떤 계시를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주로 자기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의 한 형식이 있고 또 초연의 어떤 종교 대상과 교통하는 형식도 있고 거기서 내리는 축복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종교적 요구를 채우는 방식도 있으니까 그것이 비록 단순하고 소박한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핵심적인 종교 생활의 형식은 다 취하고 있고 종교 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라든지 무속이라는 것이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보기에는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런 형식을 취했으니까 그렇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sup>66)</sup>

허암의 글을 인용한 데에서도 우리는 모리스 자스트로가 말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발견할 수가 있다. 본래 참된 종교,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종교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를 취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서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과 맺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거룩한 교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예배의 형식 가운데 모두 들어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경적 주해가 다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우리는 다만 종교의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된 내용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신도에 대해서도 당국의 유권해석이나 혹은 전통이나 제도에 따른 규정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국가신도의 종교성은 내용으로 살펴야지, 형식적으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신사 참배는 형식이나 절차의 단순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사에 가서 신도 의례를 행할 때의 기본은 일배이박수일배라고 한다. 즉 신 앞에 나가서 가볍게 절을 하고 이어서 두 번 깊은 절을 한 다음, 박수를 두 번 치고, 끝으로

66) 김홍전, 『사무엘 시대 II』(서울: 성약출판사, 2006), pp. 405-6.

다시 한 번 깊은 절을 한 다음 신전을 물러나는 것이다.<sup>67)</sup>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신명에 대한 인정과 현세를 넘어선 내세의 힘에 의지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신도가 아무리 종교 위에 도덕으로 군림하고자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덕의 탈을 쓴 거짓 종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인 것이다.

### 3. 신사 참배 강제가 우리의 예배에 대해 시사하는 점

#### 1) 일제의 신사 참배 강제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

앞서 우리는 일본이 과거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 어떻게 천황을 현인신화 하고, 이에 입각한 국가신도를 앞세워 사실상 제정일치의 국가를 이루어 소위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하였는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다. 혹자는 우리가 신사 참배의 문제를 생각할 때 굳이 일본이 국가신도의 성립 배경과 그것의 사상적 기원을 이만큼 추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일제의 신사 참배의 강제가 가진 강력한 기만성을 생각할 때에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제의 신사 참배 강제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할 때, 그것은 일제가 국가신도를 종교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형태를 달리할 뿐 어느 시대나 공통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속임과 기만이 유권 해석자 내지는 권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제시될 경우 시험의 요소는 훨씬 어렵고 교묘해 질 수밖에 없다.

다시 신사 참배를 강요 받던 일제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자. 국가신도라는 것은 본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외국의 종교 현상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종교가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왔고 이제는 누구도 그 종교를 숭배해야 할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일제의 압제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도 마지못해 수용을 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것이다.

비록 국가가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4:10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라면, 기독교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브

67) 윤광봉, 『일본 신도와 가구라』(파주: 태학사, 2009), p. 38.

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박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단 3장 참조), 신사 참배의 요구에 대해서도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제도를 직접 만들고 법적인 의미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제의 당국자들이 찾아와 신사 참배를 우상숭배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것은 종교가 아니며, 그래서 일본의 제국헌법과 또 그 일을 담당하는 부서 또한 종교국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이어서 일본의 기독교 단체 대표도 그렇게 회유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최종의 권위로 내세워 일제의 국가신도는 결코 도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종교의 요소가 있으며 그러므로 자신은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것을 통투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우상숭배의 형식을 취한 신사 참배에 대해 반대하다가 투옥되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 주어야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고민은 그러한 주장을 단순히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 근거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보편성을 가진 말씀의 해명으로 남아 후대의 교회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의 해석의 교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도 필요하며, 동시에 성신께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도록 역사해 주셔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 내지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고 깊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 이것을 모르면 신사 참배와 같은 시험에 결코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신사 참배에 무릎을 꿇게 된 과정을 살펴 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일제의 국가신도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된 종교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항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처음의 뜻을 끝까지 견지하고 못하고 결국에는 중간에 타협하거나 회유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강압에 굴복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제의 회유에, 거기에 숨겨진 기만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논리에 결국 수궁이

되어 신사 참배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귀는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때에도 거기에 강제적인 요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일에도 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참조. 계 20:10).

## 2)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그러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신의 것으로 찬탈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일본이 국가신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국학자들의 문예적 사상을 어떻게 정치 사상으로 변조하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적인 유일신 개념과 절대신의 개념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그것을 국가적인 제도로 수립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국가신도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정치·법·사회·문화·교육의 모든 면에서 이 국가신도를 하나의 국체(國體)로, 마땅히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당연한 의무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강제 종교를 정당화시켰는지에 살펴보았을 때, 사실상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때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의 모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허암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 해석한 글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용이 여인을 핍박했다는 것은 이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실의 성격을 그대로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방법으로 핍박하는가 하면 정교일치(政教一致)의 방법으로 사람에게 강제 종교를 강요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생존권을 통제하는 통제 경제 정책을 취하고 독재적인 한 세력을 확고하게 수립해서 전 세계를 그 앞에 습복(嚮伏)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계 13:3)라는 말씀으로 그가 역사상 기복(起伏)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의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존재의 부활 혹은 부흥이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을 경탄시킬 만하고 그런 아주 굉장한 활동을 해서 초범(超凡)한 역사를 하나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나중에 나와

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활동은 인류 역사 전체에 있는 활동 전부를 망라한 이야기 같지만 독특한 성격 하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권을 가지되 독재권을 가지고 있고 정교일치(政敎一致)의 독재권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역사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던 성격의 두 드러진 면은 첫째, 피와 철을 가지고 무섭게 쳐부수려고 하는 군국주의적인 것과 둘째, 인간을 신화(神化)한다는 것과 셋째로, 정교일치 혹은 제정일치(祭政一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건 ‘아시아적 대서명’이라는 것을 일종의 종교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신사 참배를 시키고 국가 신도(神道) 혹은 일본 황실 신도 하나를 유일의 종교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이 동시에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요해 나갔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샘플이 될 것입니다. 독일은 어땠었느냐 하면 독일 역시도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히틀러는 결국 반미치광이가 됐지만 그를 반신적(半神的)으로 숭앙을 시켰습니다. 모든 경우에 ‘하일 히틀러!’ 해서 ‘히틀러 만세’를 부르게 해서 히틀러를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독재권은 결국 인간을 신화하는(man-deifying) 그런 데로 자꾸 응취(凝聚)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여기에 그것이 집약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신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한다는 것을 보면 종교적입니다(계 13:14-15). 이런 종교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때때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의 오만한 전성 시기에는 가톨릭의 교황권 자체가 인간 신화의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이래로 인간을 신화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탄압해 가지고 한 손에 쥐려고 하는 세력의 운동은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되자 그 대신에 소위 가톨릭적인 로마 제국이 건설되어서 강력하게 인간을 신화했습니다. 교황은 로마 시대에 황제를 신이라고 했던 것보다도 더 보편적인 신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신적인 존재로 앉아서 그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고까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 가톨릭적인 인간 신화보다도 더 강력한 인간 신화의 독재권을 건설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독일이 해 봤다고 하지만 가톨릭이 아주 난숙한 독재권의 발휘하던 시대만 못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Heinrich IV, 1050-1106)가 파문을 취소받기 위해서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로 가서 맨발로 성문 앞에 가서 밤잠을 안 자고 찬 데에서 빌었던 일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듯이 나중에 교황은 왕 중의 왕이 되어 독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양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인간 세상에는 부분부분 산발적으로 인간 신화적

인 사실들이 늘 일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의 집중은 궁극적으로 항상 종교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러시아 같은 무신론 국가는 무신론이 한 개의 종교입니다. ‘1. 이렇게 할 것 2. 이렇게 할 것 3. 이렇게 할 것’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헤겔리안 막시즘(Hegelian Marxism)의 조목들이 하나의 정교적(政敎的)인 교조(敎條)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plan)에 따라서 자기네 혁명은 역사를 따라가면서 역사의 과정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계와 같은 것이니까 기계는 청사진대로 또는 먼저 했던 공식(formula)대로 사용하면 되고 혁명도 공식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조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관점이고 하나의 인간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교조가 됩니다.

이런 것은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히 그대로 진전해 나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한 무서운 사실로 전부 응취되고 집중되어서 발휘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로 그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땅 위에 큰 환난을 빚어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모든 인류에게 공동으로 임하는 것이니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고 땅 위에 7년 대환난이 따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sup>68)</sup>

### 3) 마귀가 요구하는 경배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경배의 근본적 차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방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신의 것으로 찬탈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일제의 국가 신도가 장차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모사라고 할 때에도 천황을 신격화하기 위해 내세운 현인신론의 경우에도 신인(神人)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유사한지 알 수가 없다. 동시에 신에 대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생각이 얼마나 그릇되었는가 할 때 거기에 대해 논리를 구성하는 방식도 기독교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의 글에서는 노리나가나 아쓰타네와 같은 국학자들에게 기독교 내지는 천주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기독교나 천주교 사상이 메이지 유신을 이끈 세력들에게만 아니라 이들 국학 운동을 펼친 문인들의 신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68) 김홍전, 『요한계시록 강해 2』(서울: 성약출판사, 2014), pp. 31-35.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필 만한 주제가 될 것이다.<sup>69)</sup>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며 국가신도를 수립하는 과정에 메이지의 책사들은 기독교의 영향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며, 국가신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 4) 신사 참배의 강제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대해 시사하는 점

마지막으로 신사 참배 강제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시사점에 대해 규정을 하기 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사실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가결하면서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교회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실질로 나타났더라면,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동방요배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실질을 어떻게 확인하였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면 어떠한 열매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는지에 대해 바로 분별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의 문제로 다가온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와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예배를 한 번만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물려서겠다고(마 4:8-9) 했다. 마귀에게 한 번 예배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포기하고 그다음부터는 마귀에게 매달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여기에서 마귀가 요구하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예배에 근본적인 차이점, 곧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69) 참고로 예수회 신부였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1506-1552)는 이미 154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로마 가톨릭을 포교한 인물이었다.